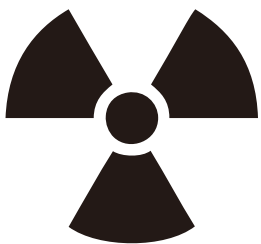


무기의 범주



방사능 경고 기호



생물학적 위험 기호

핵무기: 핵무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이며,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위협이다. 핵무기는 ‘핵분열’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는 원자가 쪼개지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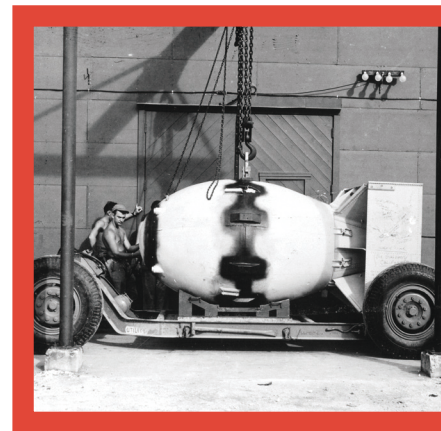
핵폭발의 효과는 강렬한 폭발, 열, 방사능을 포함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파괴를 동반한다. 태양 내부 온도와 비견될 정도의 강렬한 빛과 온도를 내뿜는 화염폭풍은 주위 산소를 고갈시킬 뿐 아니라 허리케인과 같은 거센 바람으로 주변의 잔해를 빨아들이면서 폭풍을 더욱 확장시키는데, 그 결과 막대한 규모의 화재가 발생한다. 핵폭발의 또 다른 부산물은 방사능이다. 일단 유출된 방사능 물질은 수천년 동안 존재하며 미래 세대를 암과 유전적 변이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핵무기의 파괴적 위력은 ‘상상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생화학무기: 생물무기는 고대시대부터 존재해왔다. 중세 유럽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적군이나 일반시민들을 감염시키기 위해서 포위된 도시 성벽이나 우물 속에 감염된 동물 시체를 던지는 방법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이보다 최근이라 할 수 있는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참전 양측 모두 탄소, 수소, 염소, 황산의 혼합물인 겨자가스 등의 독가스 살포 발사체가 이용되었다. 생물 및 독소무기는 살상을 위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이용하고 일부의 경우 박테리아에서 직접 추출한 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화학무기와 차별화된다. 대표적인 예가 에볼라로서, 다양한 전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포가 가능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이다. 화학, 생물, 독소 무기는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발, 생산, 비축, 이용은 국제협약을 통해 금지되고 있다. 이들 무기의 비축은 매우 심각한 위험을 제기하는데,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무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사능 무기: 방사능물질 살포장치(radiological dispersion devises, RDD) 또는 ‘더티밤(dirty bomb)’이라고 불리는 방사능 무기는 보이지 않는 방사능 오염물질을 살포해서 경제 및 사회적 붕괴를 확산시킬 수 있다. RDD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공포와 혼돈을 확산시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전쟁에서 사용된 적은 없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RDD 사용 가능성에 대한 공포는 커지고 있다. 방사능 무기에 대한 불안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는 방사능 물질은 폐연료로 저장되거나 방사능 폐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들을 방사능 무기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방사능 물질이 도난 당하여 인명 피해 및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방사능 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방사능 물질을 폭넓게 유출시킬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전쟁 중 주요 폭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방사능 무기가 입힐 수 있는 실제 피해에 관해 아직 일치된 견해는 없는데, 이는 피해가 방사능 물질의 종류와 확산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요 재래식 무기: 무기와 전쟁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주로 재래식 무기를 떠올리게 된다. 여기에는 전차, 장갑 전투차량, 각종 대포, 공격용 헬리콥터, 전투용 항공기, 전함, 미사일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은 이들 무기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재래식 중화기 거래는 거대 산업을 형성한다. 하지만, 한 지역 내에서의 무기 증강은 분쟁의 연장과 심화를 뜻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 인권, 비확산 면에서 질곡의 역사를 겪은 국가로 재래식 무기가 유입되는 문제는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유엔총회(United



1945년 9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폭탄 ‘팻맨(Fat Man)’은 7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방사능으로 인한 생존자들의 고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